

Microsoft-Sun, 라이벌에서 기술협력 관계로 거듭나다

MS (Microsoft)는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에 폭넓게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에 대한 썬(Sun Microsystems)의 지재권을 인정하고 이를 공유하는 선에서 양자간 모든 법정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함과 동시에 앞으로 기술적 협력에 노력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MS가 썬에게 19억5,000만 달러를 지급) 합의에 따르면 MS는 썬에게 현재의 반독점 소송문제 타결금으로 7억달러,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하여 9억달러를 지불하게 되며 또 두 회사는 상호간 기술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 MS는 썬에게 3억5,000만 달러, 썬은 MS의 해당기술을 자사 서버에 탑재할 때 로열티를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회사는 앞으로 서버 관련 기술을 신제품 개발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바(JAVA)와 닷넷(.NET)의 기술적 협력에 노력하는 한편, 이후 각종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고 상호간 특허 교차 라이선스 협의안을 도출하는데 합의하였다.

양사는 이번 합의로 인하여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임과 IT 산업의 성장을 위해 연구 개발의 중요성과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애널리스트들은 양사의 이번 협상에 대해 서로의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을 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MS입장에서는 EU의 반독점 소송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썬이 EU의 이번 소송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MS가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 합의로 양사 제품들이 사용자들을 만족시킬 정도로 상호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솔라리스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썬의 서버와 MS 윈도데스크톱 서버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많은 곤란을 겪었던 사용자 입장에서선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디지털카메라 특허 침해로 SONY가 KODAK을 제소

지 난 3월 9일 KODAK이 디카 특허침해를 이유로 SONY를 제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SONY가 KODAK을 제소했다.

소니는 지난 3월 31일,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미국의 코닥을 미국 뉴저지주의 연방지방법원에

인텔, 인터그래프(Intergraph Corp.)에 칩기술 특허분쟁 관련, 추가로 2억2500만 달러를 지불기로 합의

인텔은 영업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아이태니엄칩(Itanium chips)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 분쟁에 대하여 인터그래프 측에 2억2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분쟁을 마무리하였다고 지난 3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세계 최대 칩제조사인 인텔이 인터그래프와의 7년에 걸친 분쟁 합의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총 6억7500만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1년에 시작되었으며, 인터그래프는 당시 인텔의 아이태니엄칩이 자사 클립퍼칩(Clipper Chips) 특허를 위반했다며 미 지방법원(Alabama 와 Texas)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텔은 아이태니엄칩 특허분쟁과 관련하여 이미 인터그래프에 부분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1억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인터그래프는 1997년 인텔의 펜티엄칩(Pentium Chips)이 자사의 클립퍼칩에 대한 특허기술을 위반한 것으로 인텔을 제소하였고, 인텔

은 2002년에 펜티엄칩 특허분쟁에 대하여 인터그래프에 총 3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번합의에는, 인텔이 지원하고 있는 칩셋 및 마더보드와 결합된 인텔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는 PC제조사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상당한 양의 인텔칩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제조사인 Dell에 대하여 2002년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였다.

인터그래프는 지난 2002년 델, 게이트웨이, 휴렛패커드 등을 특허권 침해혐의로 텍사스 지방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인터그래프는 나머지 관련 회사들에 대하여 특정되지 않은 손실 및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중이며 이견에 대하여 8월 2일로 예정된 재판 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 지식재산권연구센터

발특2004/5

제소했다.

소니가 제소한 것은, 셔터나 마이크로프로세서, CCD(전하 결합 소자) 등 디지털카메라 관련 특허 10건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9일에는 반대로 코닥이 동사가 소유하는 디지털카메라용의 화상 처리 기술

에 관한 특허 10건을 침해했다고 해서, 소니를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었다.

소니의 홍보 담당자는, “이번 제소는 코닥에 의한 제소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 이라고 말했다.